

# '25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3	3.19	회의실	10/12	4	1	15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김안나·박양우·유한별·이경주·이숙희·장은백·정인영·정희(10명)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5	2	0	3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0	0	0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기아 타이거즈 소식 전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기아 타이거즈 안전기원제 “올해도 건강한 시즌을”(3.21), 신난다 야구야!! 화력으로 순항(3.22), 김도영 햄스트링 부상 ‘날벼락’(3.24), <뉴스투데이> 2년 연속 통합 우승 ‘걱정마!’(3.21), <빛나는 나의 도시> 다시 시작된 야구의 계절(3.26) 등 방송 조치	'25.3.
"	광주정신, 5.18민주화운동 등 전국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데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5·18사적지 순례는 5월 버스로!!(4.2), “과거가 현재를 도왔다”(4.4), <빛나는 나의 도시> 우리들의 광장 금남로, 산 자여 따르라(4.9) 등 방송 조치, 5.18 다큐멘터리 제작 중	"
"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한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호남 경제동맹·인공지능 협력 아직은 막연(3.25), <뉴스데스크> 여야 모두 ‘인공지능’·‘AI 특화도시’ 광주 수혜 기대(4.14)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주제 선정과 형식에 있어 깊이 있는 분석 부족 등 아쉬움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3.25)	"
"	인문학 등 시청자의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시사톡 라이브> ‘연결로 세상을 읽다’(3.26), 우리의 삶과 물리학(4.9) 등 방송 조치	"
기타	홈페이지 운영 미흡한 ‘건강 교실, ’1분 건강정보‘ 등 페이지 또는 활성화 필요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폐지 조치(3.25)	"
"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글쓰기와 로그인 방법 개선 필요	홈페이지 글쓰기 로그인 방법 변경 조치(4.2)	"
" (시청자의견)	2월 28일 저녁 뉴스 중 모 대학에서 석사를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정상인도 받기 어려운’이라는 멘트 사용.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됨. 차별적 용어 사용 지양 필요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조치(3.25)	"
합계		8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기아 타이거즈 소식 전해주길 바람 (강필오)	야구 시즌이 시작된 만큼 매주 월요일 주간 프로야구 소식 전할 예정임	○		
"	광주정신, 5.18민주화운동 등 전국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데 관심 바람(박양우)	5.18 기획보도와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예정임. 평상시에도 적극 보도하고 있음	○		
"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련, 지역민의 건강과 생존 직결돼 있으므로 관심을 두고 다뤄주길 바람(장은백)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련 소식을 관심 있게 취재하고 보도하겠음	○		
"	시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한 관심 필요(정인영, 정회)	조기 대선에서 호남지역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하겠음	○		
"	도심 공동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 계속해주길 바람(김동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는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주제 선정과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구현하고, 심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형식에 있어 깊이 있는 분석 부족 등 아쉬움(김안나)	총적인 분석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하겠음			
"	인문학 등 시청자의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이숙희)	텔레비전,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에서 평소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기타	홈페이지 운영 미흡한 '건강 교실, '1분 건강정보' 등 폐지 또는 활성화 필요(이경주)	해당 부서에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음	○		
"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글쓰기와 로그인 방법 개선 필요(이경주)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겠음	○		
" (시청자의견)	2월 28일 저녁 뉴스 중 모 대학에서 석사를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정상인도 받기 어려운'이라는 멘트 사용.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됨. 차별적 용어 사용 지양 필요	장애인과 관련한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하고 신경쓰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3월)

일시	2025년 3월 19일(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동진 · 김안나 · 박양우 · 유한별 · 이경주 · 이숙희 · 장은백 · 정인영 · 정희 위원(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3월부터 봄이라고 하는데 꽃샘추위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사회는 봄이 오지 않았지만, 자연의 순리는 곧 봄이 올 것이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뉴스를 보면 많은 국민이 광주문화방송, 문화방송을 보는 낙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광주MBC도 다방면에 걸쳐 유익한 프로그램 방송을 해주셔서 공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사장님 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만나 뵈게 돼 반갑다. 봄이 왔으니 좋은 일도 있어야겠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참석해주신 위원님 감사드린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지역생존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지난 2월 26일 2024 한국방송비평상 라디오 부문을 수상했다. 다큐 영화 <대통령 김대중> 제작위원회와 MOU 협약을 했고, 유튜브 <더 프레지던트> 윤공희 대주교 인터뷰를 제작했다. 3월 4일 매거진 프로그램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화수목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며, <테마기행 길> 광산구 편 촬영을 마쳤다. 주요 계획으로는 3월 20, 27일 아시아 5개국 방송사 공동제작 <아시안 탐 밴드> 시즌2를 방송한다. 4월 중 베트남 HTV, 몽골NTV, 필리핀 TV5, 카자흐스탄 JIBEK-JOLLY TV에서도 방송 예정이다. 다큐 영화 <대통령 김대중> 홍보 스팟을 제작하고, 3월 31일 라디오 신규프로그램 <MBC 칼럼>을 론칭할 예정이다. <문화콘서트 난장> 음원 발매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철거 현장에서 또 붕괴 사고가 있어 학동 참사에서 교훈 못 얻은 철거 현장 사고 또 발생, 노후주택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등 주제로 연속 보도했다. 화정동 참사가 있던 광주로서는 특히 관심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도가 남다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관심을 두고 보도했다. 광산구 소촌산단 용도 변경 논란도 집중취재했다. 광산구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취재진이 지적한 내용을 반박보다는 잘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사용광로>는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뤘다. 인구 절벽 시대에 특히 농촌지역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중국 덩시크발 AI 전쟁 상황 속에서 광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해 전력이나 어떤 부분을 눈여겨볼지 지켜봤다. 지역의 사회 양극화 해법을 찾아봤다. 담양군 재선거 토론방송은 광주MBC가 맡게 됐다.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2명을 초청해 선거 토론방송을 진행한다. 또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를 대비해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보도할 예정이다. 5.18 4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를 가제로 준비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시로 엮은 5.18 포엠 다큐멘터리다.
- 박양우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 강필오 위원 : -2월 24일 <시사특 라이브> 스포츠 하이라이트에서는 프로야구, 축구 등 한 주간의 인기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 줬다. 한규빈 전남일보 기자가 KIA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소식과 광주FC ACLE 16강 진출 안방 불패 소식, 오후성 광주FC 선수의 전화 인터뷰를 방송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다양한 소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3월 6일 <시사용광로>에서는 개막 앞둔 2025 프로야구 소식을 전했다. 기아 원클럽맨 나지완 야구해설위원과 김여울 광주일보 기자 두 분이 2연패를 노리는 기아타이거즈 올 시즌 전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도영 선수와 감독, 새로운 선수들이 어떻게 팀의 성과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선수들의 역할과 실책을 줄여 안정적인 플레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더 깊이 있는 야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각 팀의 전력에 대한 전망과 다른 프로야구팀과의 비교가 특히 흥미로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할 수 있었다. 기아의 2연패와 김도영 선수의 30-30을 응원한다. 3월 15일 <전설의 타이거즈>는 장성호 해설위원과 홍세완 코치와의 찢친 케미를 엿볼 수 있었다.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애정과, 팀의 강점과 유망주에 대한 분석을 곁들였고, 해태 타이거즈 시절의 추억과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었다. 단순한 야구 토크쇼를 넘어, 인간적인 관계와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기아 타이거즈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길 바란다.

-3월 14일 <빛나는 나의 도시> ‘차들은 가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금남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소개해줬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금남로는 다채로운 체험존과 휴식 공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도심 속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시민들이 걷고, 놀고, 쉬면서 금남로를 점령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자전거 타기, 책 읽기, 분필 아트,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환경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였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도시를 즐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

- 김안나 위원 : <아시아 탐 밴드> 시즌2는 4월 중 베트남 HTV, 몽골 NTV, 필리핀 TV5, 카자흐스탄 JIBEK-JOLLY TV 방송 예정이라는데 기대가 된다. 광주문화방송은 지역방송이지만 세계화를 위해 여러 나라로 송출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낸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져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다만 주제 선정과 형식에 있어서 편향된 시각이나 깊이 있는 분석의 부족 등만 신경 써 주신다면 시청자들의 더 많은 호응과 정보를 제공할 것 같다.

- 박양우 위원장 : <빛나는 나의 도시> 연작 기획 ‘금남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의 분열 현상과 문 제점을 5.18광주민중화운동의 현장 ‘금남로’와 연계한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도시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광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이었다고 믿는다. 광주문화방송의 저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3월 4일 <1편 우리들의 광장 금남로, 길이라는 이름의 광장>과 3월 12일 <2편 금남로의 품격>이 방송되었는데, 이 두 편으로 끝날지 또는 앞으로 더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1편은 비상계엄과 5.18민주화운동을 잘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유익했다. 특히 도시와 도시 정신을 강조한 박구용 교수 부분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앞으로 도시로서의 광주가 가진 정신, 곧 광주정신을 잘 정리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사는 물론 도시사와 정신문화사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금남로가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광장이 되었다는 정의는 매우 독특한 시각이자 합당한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인터뷰 또는 발언 영상이 광주지역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것은 조금 아쉬웠다. 물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연설이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영상이 이를 보완하기는 했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역 인사들의 인터뷰 또는 영상을 함께 넣었다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광주정신이나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편은 비상계엄 이후 혼란과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대치한 상황을 다루면서 광주시민들의 품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믿는다. 다만 2편 역시 1편과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 인사들의 인터뷰를 넣었다더라면 금남로 집회의 성숙함과 품격을 더 객관화하고, 광주 안의 인식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식으로 확산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혹 이 기획 프로그램이 더 이어진다면 2부에서 다른 ‘금남로의 품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극우 집회가 더 시도될 때 광주와 광주시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을지 다른 대안도 모색되어 소개되면 좋겠다. 극우집단의 광주 집회는 비상계엄 옹호는 물론 광주민중화운동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민주화 성지인 금남로가 능욕당하는 문제를 헌법상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소극적 인용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연작 기획 프로그램이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된 것도 좋지만, 전국 방송으로 방영되는 방안도 모색되면 좋겠다.

- 유한별 위원 :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가 3월에 출범했다. 우선,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오픈 채팅창에 접근할 수 있어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를 잘 살린 것으로 보인다.

‘백금렬의 뉴스 모타모타’는 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백금렬 선생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패널이 다소 강한 의견을 드러낼 땐 연빛나 아나운서의 노련한 진행이 돋보였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50분 동안 다채롭게 다루고 있어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신선하며 앞으로의 방송들이 기대된다.

- 이경주 위원 : -뉴스잉 서비스가 종료됐다. 광주MBC의 뉴스잉 서비스는 구독형 이메일 뉴스레터로, 지역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유용한 서비스였다. 매번 직접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최신 소식을 이메일로 편리하게 접할 수 있었던 만큼, 서비스 종료 소식이 아쉽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독형 뉴스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제공되어,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광주MBC의 뉴스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홈페이지 문화행사 페이지에는 ‘건강 교실’, ‘1분 건강정보’ 등 유익한 건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가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섹션은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만큼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지속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지가 어려우면 문화행사 페이지에서 제외하고 더 활용도 높은 새로운 섹션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문화행사 섹션이 더욱 실효성 있는 정보로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청자의 의견 창에서 ‘글쓰기’를 누르면, 로그인 안내 창이 먼저 뜨고 이후 별도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창을 닫으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뜨도록 개선된다면, 시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즉각적인 로그인 후 바로 의견 작성이 가능하도록 UX를 개선하면 시청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활발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숙희 부위원장 : -요즘 텔레비전 켜기가 무섭다. 온종일 정치 관련 뉴스만 쏟아지고 있다. 채널을 아무리 돌려보아도 먹방, 이혼, 솔로, 연예인의 개인사뿐이다. 시청자는 채널을 돌리고 시청 시간이 길수록 분노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MBC는 미래 콘텐츠에 집중하고 시청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셨으면 한다.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하늘도 도와줄 수 없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 있다. 어떻게 시민의식을 높일 것인가? 누군가는 지금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하기에 MBC가 이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인문학을 통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위한 인문학, 청년들을 위한 인문학, 실버를 위한 인문학, 기업가를 위한 인문학 등 단순한 공부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융합한 인문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할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장은백 위원 :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입법된 점과 관련하여, 전남 영광에 한빛원전이 설치되어있고,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해 임시로 저장되어있던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저장소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법이므로, 지역 차원에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위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법은 제36조에 의해 전남 영광, 고리 월성 등 기존에 원전이 설치되어 가동 중인 지역의 경우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을 해당 지역에 추가로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설치 과정도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밟는 것 정도로 되어 있어 기존에 원전 설치 지역에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저장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제36조는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을 손쉽게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에서도 위 조항의 삭제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의 처지에서는 지역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핵 발전 시설에 더하여 사용 후 핵폐기물까지 떠안게 되는 셈인데, 영광과 근접한 전남, 광주권 시민들의 보도 내용에서 왜 다뤄지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MBC에서는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지역 현안으로 위와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는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대구MBC는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폐기하라.”, “정부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졸속 추진”, “원전 터에 고준위 폐기물까지, 또 공론화 없어”,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 주민 결정권 외면“ 이처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다루고 있지만, 광주MBC에서는 한 번도 위 내용을 다룬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거주하는 이후 세대의 수십 년, 수백 년의 건강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작년 10월 <시사용광로>에서 “광주 AI 산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광주 AI 데이터 센

터에 대해 알 기회가 있었다. 올해는 AI 컴퓨팅센터의 지역이 결정된다는 소식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사용광로>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AI 데이터 센터와 AI 컴퓨팅센터의 차이점, 그리고 이번 AI 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전력, 냉각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 기업 생태계 등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해민 의원님께서 자동차 사업에 비유하며 AI 컴퓨팅센터를 엔진이자 인프라로 설명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다. 패널 구성도 훌륭했고, 강기정 시장님께서 자주 출연하시는 점도 좋게 느껴졌다. 작년에 대구 수성에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 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시청자로서 광주가 기존 AI 생태계와 인프라를 활용해 유치에 성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지역의 강점도 만만치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다른 지역의 구체적인 계획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주시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어떤 선택이 국가 AI 경쟁력에 가장 도움이 될지 다뤄주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다. 광주를 응원하면서도, 대한민국 전체의 AI 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기대해본다.

- 정희 위원 : -3월 4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 출연한 강기정 시장의 얘기를 들으니, 광주의 미래가 빛나 보인다. 현재 있는 국가 데이터 센터보다 10배 큰 초거대 컴퓨팅센터를 5월까지 신청하고 9월에 확정된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광주상공회의소나 광주경총 등에서 미래산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취재해본다면 AI에 대한 광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월 27일 <시사용광로>에 강기정 시장, 조인철 국회의원, 이해민 국회의원, GIST 공득조 AI정책전략 대학원 부원장이 출연한 AI에 관한 토론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예타 면제 사업으로 다른 지역이 SOC를 신청했을 때, 광주는 AI를 신청하였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2018의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 2025년 9월에 좋은 결과로 이어져 광주의 미래에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AI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6일 <광주MBC 뉴스>에서 무안공항 재개장 로드맵 뉴스가 단신으로 나왔다. 지역 관광회사나 임직원들의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무안공항 재개장이 광주공항과의 통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

- 김동진 위원 : -최근 MBC 보도 중에, 광주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침체하고 있는 도심 상권 반값 임대 소개해줬다. 저도 개인적으로 총장로 상인회장과 의견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임대료 현실화에 대해 실제 건물 소유주간 이견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책적으로 동구청이나 시에서 상권 활성화, 도심 공동화, 전통적 상권 총장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준 것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후속보도를 통해 잘 챙겨주길 바란다.

-사측에서 제시해주신 시청자 의견 관련이다. 우리 학교와도 관련된 사항인데,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따끔했다. 장애인 관련 보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장애나 비장애나 소수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저희가 더 관심을 두고 보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만큼 용어 등 이런 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실은 장애우라는 단어마저 적절치 않은 걸로 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어를 쓰는 걸 더 명확하게 감수성을 높여서 제작이나 취재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주의하도록 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위원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달라.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칭찬도 해주시면서 방향도 제시해주셨다. 제작진에게 전달하겠다. 후속으로 금남로에 관해 준비하고 인터뷰 등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 다시 후속 폭지를 한다면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폭지를 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박양우 위원장 : -금남로 이야기는 중앙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역 인사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인물들도 인터뷰가 되면 전국적인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당연히 5.18에 대해 이해할 거로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우리 지역 외에서는 거부감도 꽤 있다. 우리의 목소리보다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5.18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게 하자, 예상외로 우리가 주장하면 할수록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중앙의 사람들 인터뷰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이 들었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장은백 위원님 고준위와 관련한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 영광한빛원전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 지역민 안전,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겠다. 홈페이지 관련 의견을 반영했는데 더 얘기해 주시면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 김낙곤 사장 : -말을 전달하고 말을 하는 방송이라는 직업은 신문과는 다른 면이 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좋은 지적을 주셨다. 저도 방송사에 있으면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알아들을까? 저희는 그런 식의 표현을 배웠는데, 좀 더 일반 시민이 쓰는 말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말이 옳은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지역에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이번 주에 절망이 마감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마감이 됐다고 해서 바로 소망으로 직결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역사의 진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정상적인 사고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앞으로 소망, 희망의 시절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광주MBC도 그때를 대비해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끝.